

예금금리 뚝뚝, 대출금리는 여전... 예대금리차 더 벌어진다

5대은행 정기예금금리 최고 연3.1%
신용대출 금리는 3.61~5.43%

美 국채 상승, 국내 금리부담 가중
은행, 가산금리 조정해 인하 추진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낮아졌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디게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5개월 연속 확대됐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의 기본금리는 연 2.40~3.10%로 집계됐다. 최고금리는 연 3.00~3.1%다. 지난해 말 이들 은행의 최고금리가 연 3.15~3.5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 기준 0.45%포인트(p) 낮아졌다.

은행들의 정기예금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00%로 내린 영향이 컸다. 지표금리가 되는 시장금리도 하락에 영향을 줬다. 금융채 1년물(은행채·AAA) 금리는 지난해 말 3.033%에서 이달 10일 기준 2.838%로 0.195%p 내렸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용대

출 금리(6개월 기준)는 3.61~5.43%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금리(4.87~5.72%)와 비교하면 상당 기준 0.29%p 떨어졌다. 예금금리 하락 폭보다 여전히 적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87~4.95%에서 3.82~5.22%로 상승했다. 금융채 5년물(은행채·AAA) 금리가 3.089%에서 3.004%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미국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국내 은행채 금리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지표가 된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채권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등장하면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7.70bp(1bp=0.01%p) 오른 4.2930%를, 10년물 금리는 5.90bp오른 4.4970%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고 국내 대출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방침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금융채 5년물과 같은 지표금리에 신용도에 따른 추가·우대금리를 더해 정한다.

앞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가산금리를 내려 금리를 인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p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주담대·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2%p, 0.01~0.29%p 인하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0.6%p 인하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새 학기 시즌 이벤트 에듀플랜+ 고객 경품

신한카드는 새 학기 시즌을 맞아 '신한카드 에듀플랜+' 고객 대상 행사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행사에 응모하고, 에듀플랜+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경품을 준다.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 SE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 2매 ▲2025 마이신한포인트 등을 지급한다.

이어 청소년 자녀의 용돈 카드로 적합한 가족 신용카드 '신한카드 마이틴S'를 발급받은 선착순 1001명에게는 2025마이신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스쿨뱅킹 자동 납부' 이용 고객을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스쿨뱅킹 카드납부를 신규 신청하고, 신청월로부터 2개월 내 첫 납부하는 고객에게 학생 1명당 5000원을 돌려준다.

삼성카드 테슬라 차량구매 고객 무이자·금리할인 혜택

삼성카드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금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할부로 테슬라 '모델3'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또는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모델 Y·S·X'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연 4.1%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할부는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하다. 카드 할부대금 중 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결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리 할인 행사는 카드 승인 및 차량 인도 완료일 기준 오는 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고금리 막차 기회... 새마을금고, 연 4% 정기예금 주목

은행권·저축은행 금리 내리막길
"금리 하락기엔 중장기 예금 유리"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도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연 4%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이 있어 관심을 끈다. 예금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른 만큼 '고금리 막차'에 탑승하기 위한 '에테크족'과 '금리 노마드족'의 눈길이 쏠린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역 새마을금고가 연 4%의 정기예금(1년물)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한 곳은 경기 양평군 소재 용문새마을금고 본점이다. 1000만원을 예치하면 1년 뒤 세후 33만 84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충북 보은새마을금고와 서울 중구 청계새마을금고 등이 정기예금에 연 3.7% 금리를 적용한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Chat GPT가 생성한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부부' 이미지.

다. 같은 날 기준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당은 연 3.31%다. iM뱅크의 'iM주거래 우대예금'이 해당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Sh수협은행의 첫만남우대예금, BNK부산은행의 특관 정기예금이 각각 연 3.3%, 3.2% 금리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인하 속도도 가파른 흐름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16%다. 연초 대비 0.17%포인트(p) 하락했다.

저축은행이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던 지난 2023년 동기와 비교하면 1.5%p 가까이 떨어졌다. 예금금리 상당 또한 연 3.5%로 새마을금고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한동안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내리막이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대출 여력이 쪼그라든 영향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취급을 중단했다. 조달금리 상승에 리테일(소매금융) 수요도 줄었다. 상대적으로 건전성 확보에 유리한 담보대출로 눈을 돌렸지만 수요 확보에는 실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이 취급한 예적금담보대출 잔액은 1179억원이다. 전년 동기(1485억원) 대비 20.6%가량 감소했다. 이어 부동산담보대출과 기타 담보

대출이 각각 18.1%, 8.3%씩 줄었다. 새로운 대출 수요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지금이 고금리막차를 탈 시기라는 분석이다. 금리를 포기하더라도 예치 기간 2~3년의 중장기물로는 눈을 돌리라는 조언이다. 수신 금리 하락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목돈을 장기간 맡길 수 있는 투자처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이다. 중장기물의 경우 금리 인하 속도가 단기예금(6개월)과 1년물 정기예금 대비 가파르기 때문이다. 금리 하락기에는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안정적인 투자상품의 대표적인 만큼 납입기간, 가산금리 등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며 "단기 후 자동예치기간에 제공하는 가산금리까지 산정해 살펴볼 것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B금융 경영진, 자사주 2만주 매입

기업가치 제고 강한 의지·자신감
수익성·주주환원 초점 자본 관리

KB금융그룹 경영진들이 2만여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시장에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11일 KB금융에 따르면 전 계열사 대표이사 및 지주 임원들은 지난 5일 실적 발표 이후 약 2만주의 자사주를 장내 매입했다. 전체 계열사 대표이사 12명이 약 1만 3000주, 지주 경영진 13명 약 7000주를 매입했다. 그룹 경영진이 동시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반으로 2025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성과지표(KPI)를 재설정하는 등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경영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자사주 매입은 모든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

에 반영하겠다는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업계 최초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고, 분기배당정책 및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작년 10월에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방안'을 발표하며 보통주 자본비율(CET1)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 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도 KB금융은 수익성과 주주환원의 지속적인 우상향에 초점을 맞춰 자본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실적발표회를 통해 상반기 자사주 매입·소각 52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 76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CET1 비율 13.5%를 초과하는 자본도 추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현행		개선	
	가입연령	보장연령	가입연령	보장연령
노후 실손	75세 이하 표준제	100세까지 보장	90세 이하 표준제	110세까지 보장
유병력자 실손	70세 이하 유병력자		90세 이하 유병력자	

90세 고령층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4월1일부터 가입·보장연령 확대
유병력자도 90세 이하까지 가입

오는 4월부터는 90세의 고령층도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이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선 실손보험이 필수적이지만, 가입연령 제한으로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을 75세 이하에서 90세 이하로 확대한다. 보장 기간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유병력자도 가입연령을 75세에서 90세 이하로 확대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다이렉트 채널, 보험설계사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이미 보험에 가입돼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0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노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